

# 성리학의 관점으로 보는 마음빼기명상의 전인교육적 가치

- 이황의 사상을 중심으로 -

박경숙\*

**요약**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의 시작은 본성의 회복을 통한 전인을 육성 하자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변모되어져 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교육의 원래 목표인 인간성회복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급부상되고 있다. 그 방편으로 명상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빼기명상은, 우명이 창시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허상인 가짜 마음을 버리면 본성을 회복하여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체계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이어왔다. 그 중에 특히 성리학은 학문의 목적을 인간의 본성에 이르는 길, 즉 성인이 되는 것이라 보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이론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발흥되었으나 조선에 이르러 더욱 심화·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학자라고 이르는 이황은 리의

---

\*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

운동성을 주장하면서 주희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우명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형성원리,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론 등은 이황의 우주론과 심성론 그리고 수양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닮아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생에 걸쳐 어려운 학문적 수양을 요구하는 이황의 수양론에 비해 누구나 짧은 시간에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우명이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대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전인교육의 필요성이 마음빼기명상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전인교육, 마음빼기명상, 본성회복, 성리학, 수양론

##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볼 때 전인교육의 이념은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와 육예(六藝)의 교육을 내세웠던 동양의 교육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파이데이아와 육예는 인간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영적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탁월한 경지에서 완전하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육은 새로운 사회구조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고 물질적이며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실질적인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전인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이처럼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새롭게 제시된 것이 독일의 ‘신인본주의 교육사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인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은 “진정한 교육은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식내용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적 힘들의 조화로운 활동을 통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에 있다”(정영근, 2010)라고 하였다. 내면적 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활동하려면 이들을 통합하는 무엇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신’이다. 정신은 타고난 본성으로서, 상이한 능력들을 통합하고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하는 인간고유의 능력이다. 정신이라는 실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전인교육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교육은 그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인간이해를 기본 전제로 삼은 교육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물음을 피할 수 없다. 곧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수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이어왔다. 그 중에 특히 성리학은 학문의 목적을 인간의 본성에 이르는 길, 즉 성인이 되는 것이라 보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이론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조선으로 건너오면서 특히 심학 부분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조선성리학은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에 관한 수양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성리학 사상은 조선을 지배하던 중심사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이황은 조선의 성리학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황은 선조에게 『聖學十圖(성학십도)』를 올리면서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먼저 성군이 되는 뜻을 세우라고 간곡히 진언한다. 이것은 성인이 되고자하는 것을 평생 꿈꾸던 자신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는 욕심을 버려 도심에 도달하는 것이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고 그러한 본성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에 힘썼으며, 또한 그것을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그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성인의 칭호와 함께 존경받는 이유 또한 그의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평생 동안 이어간 학문과 삶에 대한 이러한 자세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편, 최근 학교 인성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음빼기명상을 창시한 우명의 교육 철학은 이황의 사상과 매우 닮아있다. 우명이 말하는 전인교육의 목표는 인간 본성의 회복이다. 그는 인간이 먼저 본성을 회복한 후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 과학과 문화가 더욱 융성하며 꽃피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공자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본성회복을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누구나 허상인 가짜 마음을 버리면 본성을 회복하고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우명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형성원리,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론 등은 이황의 우주론과 심성론 그리고 수양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닮아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평생에 걸쳐 어려운 학문적 수양을 요구하는 이황의 수양론에 비해 누구나 짧은 시간에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우명이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공과 명예, 혹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본성을 찾고 성인이 되는 것을 교육과 학문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황과 우명의 사상은 지식교육의 한계에 도달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인간 중심 교육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논자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교육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성리학과 이황의 학문적 업적을 살펴보고, 아울러 우명의 교육 사상과 그가 제시하는 마음빼기명상 방법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전인교육의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1) 성리학의 발생과 수용-유학을 재건하자.

성리학의 발생은 중국이지만 심성론이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조선에 와서이다. 고려 말에 수용된 후 성리학 사상은 조선의 건국이념이 된

다. 그 후 조선 오백년 동안 성리학은 절대적 가치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성리학자들의 활발한 논의와 논쟁 덕분에 심학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고려에 도입된 계기는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 말 시대적 상황은 중국 당나라 때 지식인들로 하여금 성리학을 탄생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혼란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사원은 권력과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힘은 나라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은 불교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승·속 잡류가 모여 무리를 이루어 만불향도(萬佛香徒)[불교 조직의 하나]라 이름 하면서 염불과 독경을 하기도 하고 해괴한 짓을 하기도 한다. 절 안팎의 승려들이 술을 팔고 파를 팔며 무기를 가지고 포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날뛰면서 유희를 하기도 하여 도덕을 어그러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다.(『고려사』)

당나라 말에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 지식인들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절박함이 성리학을 탄생시켰듯이, 고려 말에도 불교에 의한 폐해는 당나라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선진유학의 한계와 불교의 허무주의를 보완하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 성리학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성리학은 주자학(朱子學)이라고도 하며 주희의 논리만을 신봉했다. 그로 인해 주희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학자들의 입장은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대립과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성

리학은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함유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논쟁의 계기를 마련하여 심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황은 학문뿐만 아니라 인품에 있어서도 그의 일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성인의 호칭인 리자(李子)로 불릴 만큼 회자되었다. 이황은 사회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병을 핑계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학문과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사회의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 소회를 그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도의에 뜻을 둔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세상의 환란을 당한 사람이 많다. 이는 땅이 좁아 사람들이 경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 힘쓰는 학문도 다하지 못 함이 있어서 그렇다.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학문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너무 높게 자처하고, 시대를 헤아리지 않고서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李滉, 『退溪全書』)

『퇴계전서』에 보면 그가 49세부터 70세 까지 올린 53회의 사직서가 실려 있다. 명종은 이황을 거듭 불렀다. 그래도 오지 않자 독서당 관원들에게 “현자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을 탄식한다[招賢不至歎]”는 제목으로 시를 한 수씩 지어 올리라고까지 했다. 명종을 이은 선조는 이황을 잊지 못하고 여러 번 관직을 맡아줄 것을 청했으나 이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570년(선조 3년) 이황이 사망하자 선조는 슬퍼하며 이황

을 영의정에 추증했다. 사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수양에 힘쓰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오로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고자 했다. 자기완성의 학문을 지향한 것이다. 또한 58세 때 도산서원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강학에도 힘썼다. 이황은 선유들이 마음에 관한 글귀를 모아놓은 『심경(心經)』이란 책을 자기 몸처럼 소중이 했는데 그의 마음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알 수 있으며 그에게 학문의 목표는 오로지 성인이 되는 것이었다.

## 2) 중국에서의 성리학-주희가 집대성하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나눈다. 인심을 극복해서 도심에 이르는 것이 수양론의 요체라고 한다. 조선의 최고 성리학자인 이황은 “무릇 심학(心學)이 아무리 여러 갈래이지만, 그 요점을 총괄하여 말한다면 인욕을 막고[인심], 천리를 보존하는[도심] 두 가지 일뿐이다”(이황, 『퇴계전서』)라고 하였다. 인심과 도심을 성리학자들이 심학의 심법으로 삼고 성인이 되는 학문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인간을 해명하기 위한 가장 깊은 고뇌였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중국의 오래된 경전인 『서경(書經)』에서이다. 그 책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위(禪位)하면서 말씀하신 구절 중에,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지켜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闕中]”(『書經』)는 구절이 있다.

『서경』은 BC 600년에 지어진 정치규범이 되는 책이다. 여기에 나오

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은 성군으로 불리며 왕의 자리를 자식이 아닌 백성 중에서 왕 될 만한 인물에게 물려주면서 이 16자를 함께 전했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인심과 도심이라는 두 개의 마음이 있으므로 사사로운 인심에 현혹됨이 없이 도의 마음을 지켜나가라고 충고한 것이다. 그것이 성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인심은 주로 사심(私心)과 사욕(私欲)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 인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나에 대한 반성이며 극기(克己)이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우주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나에게서 벗어나 나라의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성군이 되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사사로운 욕심의 유혹이 빠지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임금된 자로서 항상 스스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본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그 시기가 이처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경』의 첫 구절도 “인심은 늘 위태롭고, 도심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서경』의 그 구절로 시작한다. 인심과 도심은 마음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짧은 설명으로 인해 성리학자들에게 이견(異見)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주희에게 성리학적인 이론의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 이천(伊川)은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이 바로 이것이다’(진덕수·정민정, 『심경부주』)라고 하여 도심은 천리로, 인심은 인욕으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하지만 주희는 인심과 인욕에 관해서 이천과 의견을 달리한다.

만약 도심을 천리라 하고 인심을 인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단지 하나의 마음이 있다. 다만 도리를 지각하는 것은 도심이요, 소리와 색과 냄새와 맛을 지각하는 것은 인심이다.(朱熹, 『朱子語類』)

주희는 ‘인심은 인욕이다’고 말하면 이 말에는 병폐가 있게 된다고 하여 인심은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더움을 아는 것, 이것이 인심이다.”(주희, 『주자어류』) 형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을 인심이라고 하였다. 인심은 “입의 맛에 대한 것·눈의 색에 대한 것·귀의 소리에 대한 것을 지각하는 것으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위태로울 뿐인 것이니 만약 인심을 인욕이라고 말한다면 악에 속하니 어찌 위태롭다고 말하겠는가?”(주희, 『주자어류』)라고 하여 ‘오직 위태롭다’는 것은 인심이 이미 형태상에서 발하여 나오면 악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지 인심이 곧 인욕은 아니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심]일 뿐인데, 그 마음이 이치에 맞고 절도에 맞으면 천리 즉 도심이 되고, 이치가 없고 절도가 없으면 인욕이 된다는 것이 주희의 인심·도심에 관한 견해이다. 주희는 이천의 사상적 맥락을 빌려 성리학을 집대성하였으나 인심과 도심에 관한 관점에서는 그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 중국에서 이천과 주희의 인심과 도심에 관한 상반된 입장은 조선 성리학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조선성리학사에서 대표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칠정논쟁과 인심도심논쟁의 맥락이 그러하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우주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론에서의 리와 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리와

기를 심성론의 사단과 도심, 칠정과 인심에 어떻게 분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성리학자들의 가장 큰 논의거리였다. 우주론에서는 우주발생의 원리와 작용 그리고 법칙 등을 리와 기로 논증하고 있다. 주희는 “리는 단지 깨끗하고 텅 빈 세계이기 때문에 형태나 흔적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는 변화하고 응취(凝聚)하여 만물을 낳을 수 있다”(주희, 『주자어류』)라고 하여 리는 우주본체이지만 운동성이 없이 법칙으로만 존재하고 운동성이 있는 것은 기일 뿐이라고 했다. 기는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적 근원’으로 이 기가 응집(凝集)·응결(凝結)하여 물질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 주희에게 리는 형이상이요, 기는 형이하이다. 형이상인 리는 단지 기가 움직이는 것 가운데 법칙으로만 존재할 뿐 스스로 운동성을 가진 것은 아니며 형이하인 기에 의해 우주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이 주희가 주장하는 리와 기의 특성이다.

### 3) 이황의 심학-마음의 구조를 그리다

주희의 리(理)·기(氣)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후 조선성리학에서 정론이 된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이론을 기준으로 각자 학문의 장을 펼쳐나갔다. 이황도 처음에는 주희를 존송하였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그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리가 법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무위하다고 하는 리에 운동성을 부여한 ‘리발(理發)’을 주장한 것이다. 이황은 리를 “기와 섞어서 말하게 되면 성(性)이 근본적으로 선한 것임을 보지 못하게 된다”(이황, 『퇴계전서』)고 하여 형이하인 기는 선·악이 공존하는 것인데 형이상이면서 우주본체인

리가 무위하다는 것은 우주본체가 선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리가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해야만 도덕성의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가 움직인다는 능동성이 없이는 도덕적 판단 근거를 나의 자율성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일 각각 그 명실로써 자세히 논한다면, 인심이라는 이름은 이미 도심과 상대하여 세워진 것으로, 자기 몸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한다. 생각건대 사사롭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니, 이미 한 쪽에 떨어진 것이다. 다만 도심의 명령을 들어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도심과 섞어서 하나로써 칭할 수 없다.(이황, 『퇴계전서』)

한쪽으로 치우친 인심을 도심과 섞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황의 생각이다. 리와 사단 그리고 도심을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고 선악이 공존하는 인심과는 구별되는 도심의 절대선이 스스로의 능동성에 의해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내가 잘못된 학설을 굳게 잡았던 까닭은 다만 주희의 ‘리는 감정도 없고 분별도 없으며 조작도 없다’는 학설을 지킬 줄만 알아서, 내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리가 어떻게 스스로 궁극적인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여기에서 감정도 없고 조작도 없는 것은 이 리의 본연의 체(體)이고, 것들인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 리의 지극히 신묘한 용(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다만 본체가 무위한 줄로만 알았고

신묘한 용이 드러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리를 거의 죽은 물건으로 인식하듯이 했으니, 도(道)와의 거리가 어찌 멀지 않았겠습니까?(이황, 『퇴계전서』)

그는 리의 체용론(體用論)을 통해 리가 능동적이며 순선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리에 체용론을 도입함으로써 주희가 무위하다고 한 법칙으로서의 리는 체(體)이고, 능동성을 가진 용(用)의 리가 스스로의 동력으로 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리의 용이 심성에서 도덕성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황은 리에는 법칙으로서의 체와 운동성으로서의 용이 있다는 체용론을 주장함으로써 리에 운동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이황의 독창적인 학설인 ‘리발’설이다. 이황이 리에 운동성을 부여하게 된 것은 기의 특성 때문이다. 기의 속성은 물질성이다. 물질이란 상대와 대립이 없을 수 없다. 기의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이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볍고 무겁고,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순수하지 못하는 등의 성질을 지녔다. 또한 모이고 흩어지고, 굽어지고 펴지고, 가기고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태어나고 없어지는 특성도 지녔다.(이황, 『퇴계전서』)

기는 유욕(有欲)·유위(有爲)(이황, 『퇴계전서』)성을 가짐으로써 본질적으로 악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황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천지의 기를 함께 얻어서 형체가 되고 천지의 리를 함께 얻어서 성이 되며, ‘리(理)’와 ‘기(氣)’가 합하면 ‘심(心)’이 되는 것

이다.(이황, 『퇴계전서』)

이황은 물질성인 기는 악의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의 능동적인 자발성이 기를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리발을 주장하게 된 이유이다. “기만 있고 리가 타는 일이 없으면 이욕(利欲)에 빠져 금수로 된다”(이황, 『퇴계전서』)고 하여 몸의 자연적 욕망인 기를 도덕적 본성인 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몸의 욕망에 빠져 금수처럼 된다고 한다. 이황은 리를 “기와 섞어서 말하게 되면 성이 근본적으로 선한 것임을 보지 못하게 된다”(이황, 『퇴계전서』)고 하여 리에 운동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황의 리발은 다른 많은 성리학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그로인해 그 유명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탄생하게 된다. 그 발단은 신진학자인 기대승이 주희의 리무위(理無爲)를 근거로 ‘사단(四端)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이황, 『퇴계전서』)는 이황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네 가지 단서인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의 네 가지 마음[감정]으로서 맹자에 의하면 이 사단(四端)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것을 확충함으로써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덕(德)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칠정(七情)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일곱 가지 감정인데, 『예기(禮記)』에 나오는 일곱 가지 감정으로 인간이 외부 사물에 접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이황의 주장은 ‘사단은 순수하게 선한 감정인데 그 이유는 근원이 천

리이기 때문이고, 칠정은 선함과 악함이 섞여있는 감정인데 그 이유는 그 근원이 천리가 아니라 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섞여서 하나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대승이 펼치는 반론의 핵심은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과 '리는 기의 주재자이고, 기는 리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론상 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현상계의 실제 측면에서는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리기불상잡(理氣不相雜)]'는 것이다. 주희의 '마음은 성과정을 통섭한다[심통성정(心統性情)]'는 논리를 들어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으면 성이라 하고, 기를 통해 드러난 마음은 모두 정에 속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단지 그 중에 선한 것만을 모아서 사단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황은 사단은 육체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근원적인 마음이라면, 칠정은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 육체에 의해 나오게 되는 정감으로써 그 근원이 분명 다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황의 리발은 리가 움직인다는 능동성이 없이는 도덕적 판단 근거를 나의 자율성에서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로지 주희의 학설을 신봉하는 조선 성리학에서 이황만의 독창적인 학문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기대승은 주희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황을 공격했고 이 논쟁은 8년 동안 서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지만 성리학자들로 하여금 깊은 사유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황 역시 이 논쟁을 통해 자신만의 논리적인 철학체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론인 리는 심성론에서 사단과 도심에, 기는 칠정과 인심에 분속된다. 리와 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에 대한 맥락 또한

연결된다. 기대승의 주장을 이은 율곡 이이는 주희의 이론을 이어받아 리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이황은 리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성리학사에 합의되지 못하는 두 줄기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 4) 마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리학의 최종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황은 심학자라고 불릴 만큼 특히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였다. 그는 “심학이 아무리 여러 갈래이지만, 그 요점을 총괄하여 말한다면 인욕을 막고[알인욕(遏人欲)], 천리를 보존하는[존천리(存天理)] 두 가지 일뿐이다.”(이황, 『퇴계전서』)라고 강조하였다. 천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리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인욕을 제거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이다. 리가 단지 관념적인 사리(死理)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 활활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주본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맹자가 ‘일체 사심이 없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으로서의 사단을 통해 리인 본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인 것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리의 자발성을 주장하게 된 것은 리를 자득(自得)하게 되면서이다.

이는 리를 극히 정밀하게 본 후에 마음으로 자득한 오묘한 경지로서,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시비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삼년 전부터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이것을 보았습니다.(이황, 『퇴계전서』)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말한 ‘장차 크게 나아갈 기미’이니 또한 좋은 소식의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자신을 가지고 힘써서 참이 많이 쌓이고 노력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이치가 서로 함양되어 모르는 가운데 사물의 이치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과 하고자 하는 일이 서로 익숙해져서 차츰 모든 행동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각각 그 하나를 전공하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자가 깊게 체득한 경지이며, ‘내면에서 우러난다면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이황, 『퇴계전서』)

철학적인 논리 또한 자신의 체험적 깨달음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본체이며 본성인 리가 내 안에 실재하는 것이므로 자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황은 리를 자득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공부방법론에 나아가는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는 50살이 넘어 이러한 체험 이후 ‘리발’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많은 저술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게 되는 경지를 통해 그동안 조각조각 쌓아온 학문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내어 놓게 된 것이다. 그는 맹자가 깊게 체득한 경지인 사단으로 리를 설명하였다.

맹자는 ‘차마 헤치지 못하는 마음’인 사단이 있다는 것을 ‘유자지정(孺子之井)’을 통해 논증하였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들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사(乍)]’ 놀라 뛰어가 어린아이를 구하는 행동을 이황은 ‘리발’로 보았다. ‘갑자기[사(乍)]’란 ‘어떤 욕심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

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순간 그 상황을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어떤 사심(私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황은 “본성이 갑자기 움직일 때에는 기가 용사하지 않으므로 본연의 선(善)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사단이란 것입니다”(이황, 『퇴계전서』)라고 하여 기가 용사하지 않는 상태를 선(善)이 이루어지는 사단의 상태라고 하였다. 기는 물질성의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악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사(乍)’란 악의 근원인 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황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단도 비록 기를 탄다고는 하겠으나, 맹자가 가리킨 바는 기를 타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순수한 리가 발하는 데에만 있었기 때문에 인(仁)의 단서·의(義)의 단서라고 하였습니다”(이황, 『퇴계전서』)라고 하였다.

그는 성인이 되는 방법으로 욕심을 버리는 것을 최고로 들고 있다. “욕망을 줄이고 또 줄여서 무욕의 상태에 이르면,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고요할 것이요, 일이 있을 때에는 사물의 이치가 왜곡 없이 드러나 성인을 배울 수 있다”(이황, 『퇴계전서』)라고 하여 욕심을 버림으로써 리를 체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무욕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무욕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이치가 왜곡 없이 드러나 성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이 “나 의식[사(私)]은 마음의 해충이요 모든 악의 뿌리”(이황, 『퇴계전서』)라고 하였듯이 나 의식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욕심은 나라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천지와 크기를 같이한다”(이황, 『퇴계전서』) 하지만 의식이 나에게 한정되는 것에서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리의 자득으로 우주의식을

확충함과 더불어 남아있는 나 의식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이황은 맹자의 구방심(求放心)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위 방심(放心)이란 물건을 좇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달리는 마음을 이르는데 그치지 않고, 짧은 시간, 한 가닥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아 나거나 잃어버림이 모두 ‘방(放)’이며 이른바 ‘구(求)’라는 것도 하루 한 끼 밥 먹는 동안 잠시 찾아 붙잡아두어 곧 종신토록 학문하는 기본을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날이면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마다, 있으면 있는 데마다, 처하면 처하는 데마다 막 새어나감이 있음을 깨달으면 문득 곧 수습하고 정돈하여 깨우쳐 있음을 얻는, 이것을 ‘구’라고 이르는 것입니다.(이황, 『퇴계전서』)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깨어있으면서 살피야 함을 말한다. “진실로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이 다만 처음에만 있고 마지막에는 관여됨이 없다면 맹자께서는 마땅히 ‘학문의 처음은 반드시 방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지금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라는 여섯 글자로 포괄하여 말한 것”(이황, 『퇴계전서』)은 처음 공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인하고 찾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성리학자들이 항상 전전공공해하는 모습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았음에 대한 반증이다.

이황에게 수양론의 요체는 ‘경(敬)’이다. 경이란 한마디로 주일무적

(主一無敵)의 의미한다. ‘하나에 집중하여 생각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다. 경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으로 처음의 마음은 천리를 체득한 도심이 되고, 두 번째의 마음은 다스려져야하는 대상의 마음인 인심이 된다. 도심에 집중하는 것을 ‘경’이라고 하며 경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 인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황 마음공부의 핵심이다. 이황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성학십도』를 들 수 있는데 성학십도는 어린 선조에게 성군이 되길 바라면서 그린 도식(圖式)으로 이황 학문의 결정체라고 할 만하다. 성군이 되는 방법론으로 경을 제시하면서 경의 체득을 강조하였다. 체득된 경은 실천을 통하여 나로부터 세계, 우주로까지 확장되어 천인합일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체득된 경에 집중하여 마음이 외물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여 악의 기미가 있으면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여 악에 흐르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참이 점점 쌓이면 마음은 어느덧 천리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는데 그것이 천인합일(天人合一)이며 성인이 되는 방법이다.

##### 5) 우명의 마음빼기 명상-공부 방법론을 제시하다

우명은 사람의 마음을 우주마음과 인간마음으로 나누고, 인간의 본성을 우주마음이라고 했다. 인간이 본성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인간마음이라고 한다. 그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눈·코·귀·입·몸에 의하여 사진을 찍는 하나의 도구이고 세상의 것을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것이 그 마음이다. 우리가 죄다, 업이다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

가 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진 찍어 자기 마음의 사진 속에 사니 인간은 세상인 근원을 배신하여 제 세상을 만들어 사니 이것이 죄이고 업이며(우명, 2011)”, 인간이 미완성인 이유는 진짜 세상이 아닌 자기가 사진 찍은 마음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마음 세상이 진짜 세상 위에 똑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사는 줄 착각하지만 진짜 세상이 아닌 사진인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마음을 버리다보면 그에 가려져있던 본래인 우주마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그 마음세계를 모두 버리면 자기중심적인 인간마음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인간완성이라는 것이다.

우명은 우주마음의 본질에 관해 ‘영원불변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존재이며 그것은 바로 우주 이전의 우주인 정과 신이라고 한다. “물질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나 이 존재는 살아 있는 존재이며 신령스러운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진리 자체의 모습”(우명, 2011)이라고 하였다. 이 존재는 ‘하늘 이전의 하늘이며, 대우주 자체의 빈 공간으로 대우주의 영광 혼 자체’이며,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만상은 이곳으로부터 나 투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우명의 사상은 이황이 주창한 리발설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은 기존의 성리학에서 리를 무위(無爲)한 존재로 인식했던 것에 반대하고 리에 능동적인 자발성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우주 이전의 우주인 존재가 살아있는 진리이며 이 존재로부터 세상 모든 만물이 나타난다고 보는 우명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명은 참마음의 실체에 대해 “흔히들 사람들은 마음이 무(無)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인데 인간의 마음은 허상이라 있지만 없는 것이나 신의 마음인 세상의 마음은 형상은 없으나 실존하는 참의 존재인 것이다”(우명, 2011)라고 말한다. 성리학자들 역시 마음의 실체를 실리(實理)로 인식했다. 성리학자들에게 참의 세계는 리이며 실재하는 존재자이다. 이황은 “태극[리]이란 어떤 형상과 장소도 없으면서 유(有)로 실재하고 실(實)로 존재한다”(이황, 『퇴계전서』)고 했다. 실존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력에 의해 만물만상을 낳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체의 의미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주역(周易)』이다. 『주역』에서는 “형체를 갖추기 이전의 세계를 도(道)라 하고, 형체를 갖춘 이후의 세계를 기(器)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형이상의 것과 형이하의 것에 대한 구분으로 형이상인 무형의 도가 우주를 화생하는 근원의 본체임을 나타낸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이를 이어받은 것이 인간의 선(善)이요, 그 선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성(性)이다.”(『周易』) 도는 음과 양의 변역(變易)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창조과정을 통해 만물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인간 심성에서 도덕성의 근거가 도를 통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 본체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본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우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의인이 되고 인간이 바르게 되려면 인간의 마음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의 것을 사진 찍는 사진기인 것이다. 세상에 사는 줄 아나 인간은 세상을 봄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 사진 속에 자기가 살고 있어 허인 것이라. 세상과 사람의 마음이 겹

쳐져 있기에 사람은 세상사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자기가 경험한 일체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감각 있었던 것이 자기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가.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서 있었던 일과 세상을 복사하는 복사기와 같은 것이다. 인간마음이 세상을 복사하는 복사기다. 인간은 세상사는 줄 아나 세상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살고 있기에 전인(全人)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우명, 2011).

우명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을 사진 찍고 오감으로 느낀 감각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허상의 마음밖에 없다. 또한 이 마음은 자기가 편리한대로 인지된 정보를 구성하고 편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하는 세상은 뇌의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명의 이론은 철학적이지만, 최근 발달한 뇌과학에 의해 자연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박사는 “세상은 존재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동굴 같은, 두개골 안에 갇혀 산다. 진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다”(김대식, 2016)고 하면서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구성한 나의 세상이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신념이 형성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되며 실제인 참세상과 단절하게 된다. 이로부터 죄와 업이 쌓이게 된다. 악이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되지 않는 상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황 또한 인심을 사심(私心)이라 하여 “나 의 식[私]은 마음의 해충이요 모든 악의 뿌리”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황이 인심을 버려 도심을 지키고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듯이 우명 역시 거짓된 인간마음을 버려서 우주마음인 참마음을 회복하여 성인인 인간완성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 나서 사는 이유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도 말한다.

더 나아가 우명 사상의 특이점은 마음 세계로 부터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참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8단계 마음빼기명상 방법을 제시한다. 내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모든 산 삶이 나의 뇌 속에 사진으로 찍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진 속에 나의 생각·감정·감각·느낌 등이 함께 묻어있다는 의미이다. 그 마음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며 나는 곧 그 마음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빼기 방법을 통해 사진들을 버리면 함께 묻어있던 생각·감정·감각·느낌 등이 함께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마음의 사진을 버리다보면 원래 존재하던 우주인 참마음이 점점 드러나고, 나의 본래모습이 우주임을 체득하게 된다. 과정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형성해놓은 마음 세계가 희미해지고 참이 점점 드러남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명상이 더욱 깊이 진행되면서 표면에 드러나는 의식세계부터 시작해 점점 무의식의 마음세계까지 찾아내어 버릴 수 있는 일련의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주와 내가 일체가 되는 참마음인 우주마음이 되고 인간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황이 꿈꾸던 성인의 경지가 아닌가?

우명의 사상은 성리학에서 우주론과 심성론이라 이름붙인 부분에서 성리학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오하고 깊으나 그의 사상의 백미는 단연코 방법론이다. 그는 알고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하는 마음빼기 명상법은 나이, 학력,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거나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있으며, 이 명상법을 통해 누구나 본성을 자득(自得)[스스로 깨달음을 얻음]하는 체험적 공부룰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학문의 목표로 삼았으며, 동시에 미래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인간완성의 경지까지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나오는 말

오래전 성인들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공자는 인(仁), 부처는 자비(慈悲), 예수는 사랑, 소크라테스는 지혜(智慧)를 가질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이기로 점철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정신문명보다 물질문명의 번영과 성장을 향해 치달아왔다. 그 사이 수많은 철학자들은 성인들이 주는 메시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세계화와 첨단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제 인류는 모두 함께 더욱 발전할 것이냐, 함께 멸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중심의 교육으로는 더 이상 인류의 미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기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옛 성인들이 제시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일 년 뒤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자칫 인간이 더 이상 환

경을 제어하지 못하는 ‘혼돈과 무지의 상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소리들이 커가고 있는 이때에 미래학자들에 의한 많은 처방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역사학자이자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유발하라리는 “혼돈이나 무지, 변화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적 균형감각이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진짜 큰 문제’는 정신적 균형 감각과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류가 직면한 기술적 도전, 정치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교육, 의미, 명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유발하라리, 2016/2017). 더 이상 지식이나 기술, 물질적 성장이 아닌 사람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리학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인간의 마음에 대해 논리적인 체계를 다듬어 왔다. 유교·불교·도교 사상을 서로 비판하고 보완하면서 마음의 근원과 원리에 관한 우주론적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조선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의 본류인 중국에서 세심하게 천착하지 못한 심성론을 심화 발전시켜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방법론, 즉 수양론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 이황은 오로지 성인이 되고자 하는 위기지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남긴 학문적 성과는 이 시대에 계승해야 될 교육의 진정한 의미로 재 탐구되고 있다. 500년 조선사상사에서 그만의 독창적인 학문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리발’설과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론을 정립하고 성군의 길을 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선조에게 전했던 『성학십도』는 그의 학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심에서 벗어나는 체험적 깨달음을 통해 내가 없어진 상태로서의 리가 도심이며 그 마음은 선의 판단근거를 하고 악의 근거가 되는 사심을 알아차렸을 때 그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주체적 마음임을 강조하였다.

이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것, 그것이 이황이 하고자한 것으로 성인이 되는 마음공부이며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전인교육이다.

이황이후 450년이 지난 지금 우명은 누구나 마음을 닦아 성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명 또한 이황과 같이 인간마음을 모두 버려야 할 가짜의 마음이라고 규정하였다. 인간마음을 다 버렸을 때 우주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우명은 이황이 이상향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조들이 추구해온 학문과 교육의 목표를 계승함과 아울러 더욱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음빼기 명상방법을 통해 가짜인 인간마음을 다 버리고 본성인 우주마음이 되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넘어서 일체의 사심이 없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부딪침과 걸림이 없어 싸움이 없는 하나 된 세상이 된다. 또한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게 되니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세상이 순리와 공존의 세상으로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이 빼기를 하는 이유이며 성인을 꿈꾸는 진정한 전인교육이라고 그는 말한다.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황과 우명의 교육 사상은 급변하는 전환의 시대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존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진정한 인간중심 교육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우명은 인간 완성을 위한 실제 방법론은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인류 정신문명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되며, 그의 사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論語』

『四書或問』

『書經』

『心經附註』

『周易』

『朱子語類』

『退溪全書』

김대식 (2016). 눈에 보이는게 진짜 현실일까?. tvN.

우명 (2011). 이 세상 살지 말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가서 살자. 서울: 참출판사.

유발 하라리 (2017). 호모데우스-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파주:김영사. (원서 2016년 발행)

정영근 (2010). 발도르프 교육론의 전인교육적 고찰. 발도르프교육연구, 2(1), 1-20.

Abstract

# The Human Completion Education value of Mind Subtraction Medi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eo-Confucianism -Focused on the Viewpoint of Lee Hwang-

Kyoungsuk Park\*

The beginning of education, whether in the East or the West, started with the intention of fostering complete human beings through the restoration of nature. However, as the social structure changed, education was getting transformed into developing the workforce that society needed. However, as the 4th revolution sheds new light on person's role,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which is the restoration of humanity, is rapidly emerging as the societal needs change. Meditation is gaining attention as one of strategies, and among them, Mind Subtraction meditation(Finding True Self meditation) which was created by Woo Myung argues that if one eliminates one's false mind, which is an illusion, one can restore one's true nature and become a saint. It suggests a very specific and systematic method to achieve this. Historically, numerous philosophers have continued their quests about human nature. In

---

\* Instructor, Department of philoso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ticular, Neo-Confucianism posited that the purpose of learning as a path to reach human's original nature, which is achieving sainthood, and it made efforts to creat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esent the methodology. Neo-Confucianism was risen in China but it could be said to have more deepened and developed i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Especially, Lee Hwang, who is known as a scholar of Sim, argued the movement of Li and established his own unique theory that differs from Zhu Xi. Woo Myung's principle of original human nature and mind as well as the methodology to achieve sainthood are very much similar overall to Lee Hwang's cosmology, theory of mind, and cultivation theory. However, in its methodology, Woo Myung's meditation, which suggests a way that anyone can throw away one's mind in a short time, seems to have progressed even further than Lee Hwang's cultivation theory, which requires a difficult academic discipline throughout one's life.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cessity of an education for human completion, which is urgently required in the current times, would lead to its achievement through the Mind Subtraction meditation.

**Key words:** Human completion education, Mind subtraction meditation, Nature recovery, Neo-Confucianism, Discipline theory

**■ 박경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전화: 051-510-1514

전자우편: siunpark@daum.net